

12 우리의 주인되시는 그리스도

Chapter

행 2:22~42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23장 (그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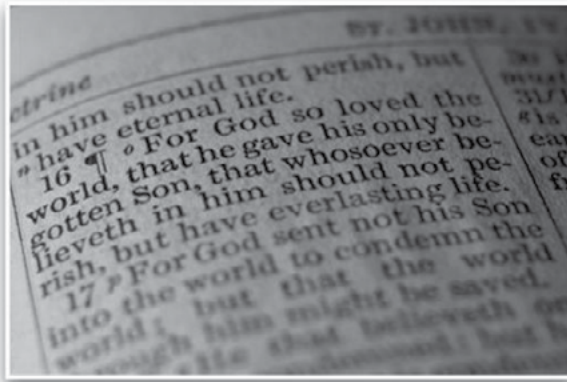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심을 압니다.
2.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가 사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짐을 압니다.

마음 열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징병 제도에 의해 군에 들어가 훈련을 받던 월터 윌슨(Walter Wilson)과 그의 부대원들은 뉴욕의 한 실업가가 보낸 포켓용 거울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거울의 뒷면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뒤를 보시오.”

주님의 말씀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던 윌슨은 죄와 욕심뿐인 자기의 삶을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체대 후 그는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는 의사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간증을 기록한 책이 바로 'A Doctor's Best Love Story'입니다. 복음 말씀 한 구절이 한 인간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는 천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말세, 즉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신 생애와 사역, 우리를 대신한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의 승천과 영화를 차례로 증명하며 그 증거로 성령이 강림하셨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한 것입니다. ‘주’라는 말이 예수님의 ‘신분’ 혹은 ‘지위’를 언급한 것이라면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사역)’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믿고 감사하면서도 그분을 삶 가운데 실제적인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실제로 그분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스릴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행 5:30~31)

“The God of our fathers raised up Jesus whom you murdered by hanging on a tree. Him God has exalted to His right hand to be Prince and Savior, to give repentance to Israel and forgiveness of sins. (Ac 5:30~31)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딤후 1:9~10)

(딤텔 1:1~3)

(벧후 2:20~22)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베드로전서 2장 21~25절을 읽고 다음에 답해 보세요.

1.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 중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어느 구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지 찾아서 적어 보세요.

①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

② 우리 삶의 본으로서의 예수님 :

2.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욕하시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 본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누가복음 23장 46~54절을 읽고 적어 봅시다.

① 백부장 :

② 구경하러 모인 무리 :

③ 아리마대 요셉 :

3. 24절에서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① 우리의 ()를 담당하셨습니다.

② 병이 치료가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을 입었습니다.

4.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4~25절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

① ()에 대하여 죽기를 원하십니다.

② ()에 대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③ 더 이상 ()을 읽고 헤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④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영혼의 ()와 ()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먼저 필요한 것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나 역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신뢰를 하게 되니까요.

구주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의 교수이자 금세기의 위대한 크리스천 평신도였던 C. S. 루이스가 채플 시간에 한 번은 ‘예수의 구주 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어떤 학생이 루이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이다.’라는 케케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루이스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지요.”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청년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아,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도덕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다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